

영암, 지역자원 활용 예비창업자 모집

내달 7일까지 신청... 최대 1200만원 지원

영암군이 5월 7일까지 '지역자원 활용 창업 지원사업' 참여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

전남의 '2025년 동행 일자리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영암군은, 이번 사업으로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선다.

지역자원 활용 창업 지원사업으로 지역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해 창업할 영암군민과 영암군 전업 예정자를 지원한다. 동시에 창업 아이디어의 구체화와 사업화 역량 강화도 뒷받침한다.

예비창업자로 선발되면 아이디어 심사, 창업스쿨, 전문가 컨설팅 등 단계별 창업 준비 과정 등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로 성장하는 체계적 지원을 제공받게 된다. 영암군은 총 4명의 예비 창업자를 선발해 최대 1200만원의 창업 지원금도 지급한다.

전학준 지역순환경제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실현되도록 돕겠다. 지역 창업 생태계 강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사업에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영암=김현우 기자

진도군보건소 '찾아가는 전남건강버스' 운영

의료 취약지역 주민 대상 혈압 측정·구강검진 등



진도군은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전남건강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찾아가는 전남건강버스 사업은 진도군보건소 방문보건 전담팀과 강진의료원 인력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의료 취약지역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높은 경로당을 방문해 순회진료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3년 11월에 진행된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월 1~2회 경로당에 방문해 혈압·혈당 측정, 체지방·심전도·골밀도 검사, 구강검진, 한방진료, 건강상담 등을 통한 맞춤형 보

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만성질환 관리, 합병증 예방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교육과 건강증진사업 홍보(국가암검진, 무릎인공관절·안질환 수술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보건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진도군보건소 관계자는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격차에 대한 소외감을 해소하고 맞춤형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전남건강버스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보건·의료사업을 통해 건강한 진도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재영 기자

완도, 국비 106억 투입 도서 종합개발사업 추진

물양장 확장·선착장 정비 등 생활기반 시설 확충 소규모 어항 개발사업 군비 57억 원 추가 확보

완도군은 국비 106억 원을 투입, 56개소를 대상으로 '2025 도서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도서 종합개발사업은 도서 지역의 생활기반 시설 정비·확충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복지를 향상하고자 행안부와 국토부 등 2개 부처가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장기 계속 사업으로 군은 2017년도에 3차 계획을 마무리했고 2018년부터 2027년까지 4차 계획(총 사업비 1,180억 원)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149억 원을 투입, 금일동백지구 소규모 어항 정비 외 48개

소의 사업을 마무리했다.

올해는 국비 106억 원을 투입, 금일읍 소량도·월송리와 보길면 예작리·청별 물양장 확장, 노하읍의 북고리·충도리 선착장 정비, 군외면 흑일도 도로 정비 및 LPG 배관망 설치, 청산면의 노을길 경관 조성 과 여서리 등산로 진입로 개설, 모동리 마을 안길 포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은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숙원을 해결하고 사업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도서 종합개발사업에서 배제되어 추진하지 못했던 소규모 어항



사업 대상지인 완도 보길면 예작리 전경.

개발과 마을 진입로, 관광지 정비 등 주민 생활 및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군비 57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신우철 군수는 "도서 종합개발사업을 통해 생활환경이 개선되어 주

민 삶의 질을 높이고 수산물의 원활한 생산과 수송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도서 지역을 활력 있고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이두서 기자

무안 '돈·세·고 축제' 10월 3~4일로 연기

무안군 운남면 축제추진위원회는 4월 19~20일 열릴 예정이었던 '2025 운남에서 돈·세·고 놀자 축제'를 10월 3~4일로 연기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관내에서 확산한 구제역으로 인한 차단 조치와 지역 사회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조치다.

이창래 축제추진위원장은 "돈·세·고 놀자 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운남면 대표 축제가 될 것"이라며 "가을의 정취 속에서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겠다"고 전했다. /무안=김상문 기자

강진 마량놀토수산물시장 개장, 관광객 5000여명 '북적'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 가득...반값 혜택 받고 떠나는 미식 여행

강진 마량이 올해도 관광객들로 북적이며 활기를 띠었다. 제9회 마량놀토수산물시장이 지난 12일 강진군 마량항 중방과제 일원에서 화려하게 개장하며, 개장 첫 날 5,000명 가까운 관광객이 행사장을 찾아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다.

행사는 이날 낮 12시 축하공연으로 시작했다.

특히, 목포 MBC라디오 '즐거운오후 2시' 현장 녹화방송도 앞당겨진 행패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축하공연에는 '미스터트롯2 Top1' 안성훈, '미스트롯3' Top4 미쓰킵 등 인기 가수들이 출연해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올해로 운영 10주년을 맞은 마량놀토수산물시장은 2015년 처음 개장한 이후 2024년까지 연인원 112만 명이상이 다녀가며, 총매출 100억 원을 기록하는 등 경제 활성화와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은 강진의 대표 관광지이다. 올해는 강진에서 사용한 여행 경비의 절반을 지역 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강진 반값여행'의 혜택과 더불어 관광객 방문 성장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마량놀토수산물시장은 10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약 30회 가량 운영될 예정이다.

행사기간 중 운영 및 판매부스는 5종 29개소다. 횡집 등 음식점 4개소, 수산물콜러 7개소, 건어물 판매장 2개소, 길거리음식 6개소, 할머니장터 10개소로, 싱싱한 수산물과 다양한 먹거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다.

이번 놀토수산물시장은 콘텐츠 면에서도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행사장 곳곳에 스틸테코 포토존을 조성해 여기저기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로 북적였고 이색 체험인 AI 캐릭터 포

토부스가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현장 구매 영수증 제시하면 도토리 캐리커처 또는 홍보물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큰 호응을 얻었다.

토요일에는 야외무대를 신설해 댄스공연, 마술쇼 및 버블쇼 등 다양한 공연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노래자랑을 보며 맛있는 음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야간에는 LED 바다분수와 미디어 파사드가 어우러진 야경이 방문객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군민들에게서 정성을 다해 손님맞이를 하고 있어 전국적인 불황 속에서 강진군은 폐업 없이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림과 동시에 1차 농수축산품 판매도 늘어 강진군의 정책 방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진=김경선 기자

목포, 수산식품산업 도약 이끈다... 추진 TF 본격 가동

수산식품수출단지·국제 마른김거래소 활성화

목포시가 수산식품수출단지와 국제 마른김거래소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실무 추진 TF(특별작업반)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수산식품을 전락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총 1137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46,612㎡ 규모의 수산식품수출단지를 조성 중이다.

이 단지는 가공·수출·연구개발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

설로, 지역 수산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시장 확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시는 마른김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제 수출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국제 마른김거래소도 함께 조성하고 있다.

두 사업 모두 목포시 미래 100년을 책임질 핵심 전략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1일 해양수산환경국장을 중심으로 한 9명의 실

무 추진 TF를 구성하고, 시청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매월 2회 정기회의를 열어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며,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 자문단도 별도로 운영해 분기별 회의를 통해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산식품수출단지와 국제 마른김거래소는 목포 수산식품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중대한 사업"이라며 "TF를 중심으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목포=김재욱 기자

신안, 범씨 온탕소독 무료 서비스 13개소 실시

안전교육·사전예약 접수 필수

신안군은 올해 비농사에 앞서 범씨 온탕소독 무료 서비스를 4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13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실시하며, 기간 중 사전 예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범씨 온탕소독기를 이용해 60℃ 물에 10분간 담그고 찬물에 바로 식혀서 종자를 소독하는 방법으로 커다라병, 도열병 등 종자전염성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용을 원하는 농업인들은 반드시 각 읍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사전 예약한 후 마른 종자를 10kg당 1주머니에 가져와야 온탕소독을 진행할 수 있다.

지난해 1,072 농가가 이용하여 321톤을 소독하여 비농사 일손 부족에 큰 도움을 주었고, 안전한 온탕소독



을 위해 사용 안전교육과 더불어 전기와 온탕소독기 사전점검 등을 완료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현재 공급되는 보급종 비 종자는 미소독종자이기 때문에 종자소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전하면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철저한 종자소독으로 병해충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신안=정경우 기자

해남, 생계급여수급자

대학생 월세·기숙사비 지원

해남군은 4월부터 생계급여수급자 가구의 대학생 자녀에 대해 월세 및 기숙사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신규시책보고회를 통해 발굴되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시행하게 됐다.

사업비는 전액 군비로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수급자 중 월세 및 기숙사에 거주하고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다. 월세는 월 최대 10만원, 기숙사비는 학기당 총 금액의 30%를 지원한다.

신청서, 재학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상반기 신청기간은 오는 18일까지다. /해남=김동주 기자

해양치유완도

2025 청산도 슬로푸드 축제

슬로시티 청산도 일원

2025년 4월 5일(토) ~ 5월 4일(일)

주최 : 완도군
주관 : 청산도슬로푸드축제추진위원회